

우라반다이가 자아내는 빛깔의 조화(꽃과 새)

우라반다이의 풍경은 1년 내내 변화합니다. 봄과 여름에는 초록빛 가득한 색조로, 가을에는 선명한 색으로 되며 겨울에는 하얀 눈 풍경으로 바뀝니다. 각 계절에 보이는 새와 꽃이 습지나 호수와 늪, 아고산대의 숲에 한층 더 색채를 더합니다.

여름에는 차분한 갈색 색조의 숲새(*Urosphena squameiceps*)와 굴뚝새(*Troglodytes troglodytes*)가 날기 시작하며, 쇠유리새(*Larvivora ciane*)와 무당새(*Emberiza sulphurata*)가 푸르고 노랗게 선명한 색조를 자아내며 주변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. 습원에는 닛코 원추리의 꽃(*Hemerocallis dumortieri* var. *esculenta*)이 타오를 듯한 노란색 용단으로 촘촘하게 깔립니다.

가을이 되면 청화쑥부쟁이(*Aster microcephalus*)의 보라색 꽃잎부터 좃대승마(*Actaea simplex*)의 높은 줄기를 덮는 작고 하얀 꽃송이에 이르기까지, 색채의 분위기가 차분해집니다. 겨울에는 칠엽수(*Aesculus turbinata*)나 너도밤나무(*Fagus crenata*)의 회색 줄기와 마른 나뭇가지가 두껍게 쌓인 눈을 배경 삼아 또렷하게 보입니다. 여기에 양백당나무(*Viburnum opulus*)의 붉은 열매와 황여새(*Bombycilla garrulus*) 날개 끝의 붉은 빛이 색채를 더해 경관에 포인트를 줍니다.

봄의 따스함과 함께 우라반다이에 울창한 초목의 초록빛과 선명한 빛깔의 꽃이 돌아옵니다. 오구니누마 늪 근처에서는 진홍색의 홍황철쭉(*Rhododendron japonicum*), 아고산대의 숲에서는 분홍색 분홍노루발(*Pyrola asarifolia*)이 꽃을 피웁니다.